

헤테로토피아 공간관에 의한 지기구조적 패션디자인 개발

신 혜 정 · 김 혜 연*

수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요 약

본 연구는 철학적 개념을 시각화하여 패션디자인의 발상법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는 이질적 요소로 기존 공간을 낯설게 접근하는 공간관으로 패션디자인의 창의적 방법 구현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헤테로토피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이를 근간으로 하는 패션디자인 발상법을 도출하고 디자인 소스로 활용할 지기구조에 관한 고찰을 병행한 작품 연구에 있다. 헤테로토피아 공간관에서 비롯된 다양한 발상법의 유형에 따른 디자인을 구체화하여 창조적 패션디자인의 표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 연구 방법으로 첫째, 헤테로토피아와 디자인 소스로 응용할 지기구조에 대해 국내외 서적과 선행연구,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고찰한다. 둘째, 지기구조와 패션디자인의 유사점을 모색하여 디자인 소스로서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셋째, 헤테로토피아의 6가지 원리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디자인 개념의 틀을 구축하고 지기구조적 패션디자인 방법을 도출하여 6벌의 작품을 제작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을 낯설게 해석하는 헤테로토피아는 패션에서 새로운 인체 공간에 대해 사고할 수 있게 해주어 독창적 발상법을 도출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패션과 지기구조는 인체와 제품을 내부 공간에 담아 외부 구조를 형성한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며 형태의 구축 방식과 기능 등 디자인 제작 원리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패션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소스로 충분하였다. 셋째, 헤테로토피아의 6가지 원리로부터 디자인 개념의 틀을 도출하였고 이는 기존 관념에서 인체 공간을 해방시켜 6가지의 지기구조적 패션디자인 방법으로 의상 형태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넷째, 지기구조의 특징을 인체와 어울려 표현한 결과 형태를 통해 지기구조가 헤테로토피아 공간관을 패션디자인으로 표현하기에 흥미로운 디자인 소스였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헤테로토피아, 지기구조, 패션디자인 발상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교신저자: 김혜연, hykim@ewha.ac.kr

접수일: 2021년 7월 31일, 수정논문접수일: 2022년 2월 17일, 게재확정일: 2022년 3월 17일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여러 개념이 혼재된 현대 패션디자인은 이원론적 발상으로부터 벗어나 생소한 것으로부터의 창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다양한 현상, 이론과의 교류로 패션디자인 방법론의 경계를 확장시키고 있다. 철학의 개념을 시각화하여 패션디자인의 발상법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새로운 접근이라 생각된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공간 개념인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는 유토피아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공간의 절대성을 부정한다. 의복은 인체와 인체의 외부 공간의 관계로부터 형태가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공간을 이질적 요소로 낮설게 하는 헤테로토피아는 패션디자인의 창의적 방법 구현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다. 헤테로토피아를 활용한 패션디자인 선행연구로 Kim(2016)은 헤테로토피아의 관점으로 패션디자인을 분석하고 패션디자인의 발상 유형을 도출하였고, Seo(2011)는 헤테로토피아 공간관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의 Fluid Form의 조형적 특성을 미적으로 의미화하였으며, Chung et al.(2018)은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근거로 현대 남성복에 나타난 젠더리스 스타일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들은 현대 패션을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발상 유형의 도출이나 패션스타일 분석으로 새로운 분석의 틀을 보여주는 사례연구와 이론연구 중심이다. 본 연구는 헤테로토피아의 원리를 통해 패션디자인 발상법을 도출한 후 실제 작품으로 구현하는 작업을 제시함으로써 이론 중심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지닌다. 새로운 패션디자인 발상법을 위해 헤테로토피아 공간관을 분석하여 패션디자인 방법을 도출하고, 이를 시각화하기 위해 디자인 소스로 지기구조를 활용하고자 한다. 지기구조는 공간의 구축

과정, 내부 공간과 외부의 관계 그리고 조건에 따른 형태의 다양성 측면에서 의복의 제작 원리와 비슷하다. 몸 공간과 패키지 공간을 한 공간으로 연결하고 생소하게 변형하여 패션디자인의 창의적 조형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헤테로토피아의 특성을 고찰하여 독창적 패션디자인 발상의 틀로서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철학적 개념을 시각화하기 위한 디자인 소스로 지기구조의 특징과 패션디자인과의 유사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헤테로토피아 공간관에서 비롯된 디자인 발상 방법을 제시하고 다양한 유형에 따른 디자인을 작품으로 구체화하여 창조적 패션디자인의 표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미셸 푸코의 헤테로토피아와 디자인 소스로 활용할 지기구조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이를 근간으로 하는 패션디자인 발상법을 도출하는 작품 연구이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디자인 개발을 병행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헤테로토피아의 개념과 원리는 Foucault의 저서 「Heterotopia」(1967/2014)를 바탕으로 다루고 국내외 서적과 선행연구,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고찰한다. 둘째, 디자인 소스로 응용할 지기구조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고찰하여 디자인에 적용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또한, 지기구조와 패션디자인의 유사점을 모색하여 디자인 소스로서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셋째, 디자인 발상법을 위해 헤테로토피아의 6가지 원리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디자인 개념의 틀을 구축하고 지기구조적 패션디자인 방법을 도출하여 연구 작품의 근간을 마련한다. 넷째, 지기구조를 활용하여 지기구조적 패션디자인의 6가지 방법으로 6벌의 디자인을 제작하여 헤테로토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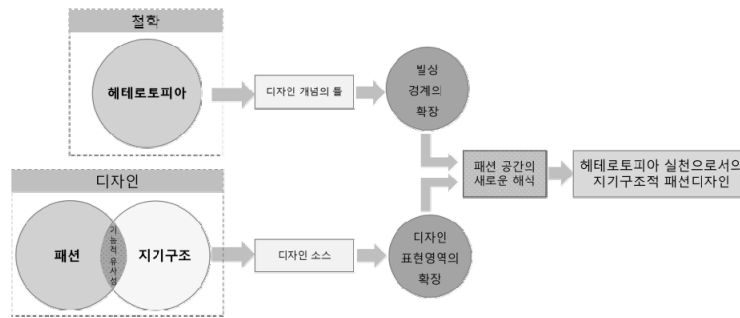


Figure 1. 연구 개념도.

를 반영한 디자인 발상법의 가능성을 검증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는 본 연구의 개념도를 정리하면 <Figure 1>과 같다.

II. 이론적 고찰

1. 헤테로토피아 공간관의 개념과 원리

포스트모더니즘 철학자는 고정된 가치를 중시하던 모더니즘의 전통적 논리체계에 저항하였다. 대표적 인물로 프랑스 사상이자 미셀 푸코는 진리의 확실성, 고정된 본질 또는 의미와 같이 전통적으로 중시되던 사고체계로 역사를 바라보지 않았다(Lee, 2015). 현시대를 동시성의 시대, 병렬의 시대, 가까운 곳과 먼 곳의 시대, 인접성의 시대, 분산의 시대로 설명하였다. 또한, 여러 지점을 연결하고 교차시키는 네트워크로서 경험하는 시대(Foucault, 1967/2014)라 언급하였다. 그에게 철학은 보이는 바를 가시화하는 일, 달리 말해서 지극히 가까이 있는 바를, 지극히 즉각적인 바를, 우리에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바를 보여주는 일이다(Gros et al., 2002/2006). 그는 다양한 분야의 저서를 통해 역사적 특정 구조가 인간의 본질을 넘어서 사회를 지배한다고 보았으며 그의 저서 속 공간을 나타내는 언어들-경계, 외부, 구성

체, 분산, 감금, 거울, 지층, 시선, 구조, 감시 등을 통해 공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Park, 2017). 이러한 공간 언어는 그의 철학적 사유방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의 공간 언어인 헤테로토피아는 ‘heteros(다른)’와 ‘topos(장소)’를 합친 신조어로 본래 의학 용어 ‘이소성(異所性)’이라고 번역되는데, 신체 부위나 기관이 비정상적인 자리에 있는 위치 이상을 가리킨다(Foucault, 1967/2014). 푸코는 「말과 사물」(1966/2012)의 서문에서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Jorges Luis Borges)의 글을 인용하여 공간 개념으로부터 역사를 연구하고자 헤테로토피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어떤 중국 백과사전에는 동물이 ㉠황제에게 속하는 것 ㉡향기로운 것 ㉢길들여진 것 ㉣식용 쥔 먹이 돼지 ㉤인어(人魚) ㉥신화에 나오는 것 ㉦플러나 싸대는 개 ㉧지금의 분류에 포함된 것 ㉨미친 듯이 나부대는 것 ㉩수없이 많은 것 ㉪아주 가느다란 낙타 털 붓으로 그린 것 ㉫기타 ㉬방금 향아리를 깨뜨린 것 ㉭멀리 파리처럼 보이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다(Foucault, 1966/2012).

보르헤스는 알파벳으로 매겨진 순서 외에는 항목들의 연관된 필연성 없이 동물들을 병치하였다. 푸코는 그의 이러한 분류법으로부터 언어의 비-장소를 강조하였고 개연성 없는 병렬로 기존의 인식

을 해체하였다.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와 대조된다. 헤테로토피아는 실질적인 장소가 있는 현실화된 유토피아이며 ‘실재하는 공간’으로 구체적인 대항-장소(counter-sites)로 작용한다. 어떤 의도에 의해 일시적으로 생겨나 존재하는 특별한 장소,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사라질 수 있는 미정착된 장소들인 것이다(Ahn, 2017). 즉, 이질적이고 무질서한 요소들이 조합된 불안정한 공간으로 비일상적 요소에 의한 현실 장소를 의미한다. 푸코는 헤테로토피아를 거울 공간에 비유하였다. 거울 속 공간은 장소가 없기에 유토피아로 볼 수 있지만, 거울 자체는 비현실과 현실이 공존하며 실체 없는 공간에서 특정 대상의 가시성을 부여하기에 헤테로토피아로 해석할 수 있다. 현실 세계를 가시적인 모순 공간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거울은 현실화된 유토피아, 즉 헤테로토피아이다.

헤테로토피아에 대한 연구인 헤테로토플로지(Hétérotopologie)는 헤테로토피아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6가지 원리를 설명한다.

첫째, 모든 사회에는 헤테로토피아가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절대적이지 않다. 이는 위기와 일탈의 헤테로토피아로 나뉜다. 원시 사회의 특권화된 금기 장소인 사춘기 청소년을 위한 집, 달거리하는 여성들을 위한 집, 출산을 기다리는 여성을 위한 집(Foucault, 1967/2014)은 생물학적 위기의 헤테로토피아이다. 이는 인간이 삶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불연속적이고 무질서한 시기를 말한다. 오늘날 위기의 헤테로토피아는 일탈의 헤테로토피아로 전환되었다. 정신병원, 양로원, 감옥같이 평균에서 벗어나고 사회적 규범에서 일탈한 개인을 위한 헤테로토피아이다.

둘째, 헤테로토피아는 시간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변화하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 푸코는 이를 묘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시대에 따라 묘지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보인다. 18세기 말 이전 묘지

는 교회와 도시 중심에 있었고, 그 이후 판에 시체를 보관하며 두려움의 공간으로 여겨져 도시 밖으로 이동하였다.

셋째, 헤테로토피아는 양립 불가능한 공간이 한 장소에 놓인다. 그는 영화관과 극장, 정원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이 공간은 한 장소에 여러 공간이 쌓여 공존하는 형태이다. 영화관은 2차원 스크린에 3차원 공간이 영상되고 극장은 무관한 장소들이 한 무대에 이어진다. 또한, 정원은 오랜 세월이 다양한 관계들로 중첩된 공간이다. 이 공간은 사유가 불가능하고 불연속적인 이질성을 인정한다.

넷째, 헤테로크로니아(Heterochronia)로 시간의 헤테로토피아이다. 헤테로크로니아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유크로니아(Uchronie)이다. 유크로니아는 부정 접두어 ‘u’와 시간을 의미하는 ‘chronos’가 합쳐져 가상의 시간대, 허구적, 대안적 역사를 가리킨다(Foucault, 1967/2014). 이는 유토피아와 비교되며 현실에 없는 시간으로 이질적인 시간, 정상성에서 벗어난 시간을 의미한다. 푸코는 박물관과 도서관을 예시로 들며 한 공간에 모든 시간, 역사와 양식 그리고 형식이 축적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한시적 헤테로토피아 역시 존재하며 일 년에 한두 차례 열리는 시장과 휴양촌이 그것이다.

다섯째, 닫힘과 열림의 특징을 갖는 헤테로토피아이다. 들어가는데 자유로울 수 없는 허가가 필요한 감옥과 군대는 주변과 고립된 닫힘의 헤테로토피아이다. 반면, 열려있지만 열려있지 않은 헤테로토피아로 브라질의 손님들을 위한 가옥을 들 수 있다. 누구나 이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집안으로의 진입은 불가능하다. 이는 출입이 자유로운 열린 장소이자 내부로부터 격리된 닫힌 공간이기도 하다.

여섯째, 헤테로토피아는 공간 자체가 의미가 있고 다른 공간에 대한 기능을 갖는다. 이는 환상의 헤테로토피아와 보상의 헤테로토피아이다. 환상의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을 환상의 공간으로 만드는

사창가를 들 수 있고 보상의 헤테로토피아는 무질서해 보이지만 질서정연한 식민지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러한 헤테로토피아의 6가지 원리를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음 장에서 제시할 디자인 개념의 틀도 위의 6가지 원리를 근거로 분류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2. 지기구조의 개념과 종류

지기(紙器)는 종이로 만든 상자, 즉 종이 용기를 뜻한다. KSA1006(한국공업규격) 포장 용어에서는 지기를 판지로 성형한 용기의 총칭이라고 말하고 있다(Kim, 2001). 종이는 포장의 중요한 재료였고 16세기경 종이는 얇고 평면적이며 유연하다는 일반 개념을 깨고, 종이에 어떤 두께를 주어 구조체로 필요한 강성을 부여하여 용기로서의 가치를 찾아냈다(Choi, 1999). 현재까지 종이는 무게가 가벼워 경제성이 높고 자동화로 다양한 형태 제작이 가능하며 인쇄, 가공 등의 후 작업이 쉽고 폐기성 역시 좋아 패키지 재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구조는 3차원의 형태로 상품을 담을 수 있는 포장의 기법을 말한다. 이는 기능적이고 사용하기 쉬워야 하며 양산할 수 있고 경제성과 동시에 다른 상품보다 주의력을 끄는 진열성이 있어야 한다.

앞선 의미로부터 지기구조란 종이로 만들어진 포장을 위한 상자의 구조를 뜻한다. 지기와 포장의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은 포장이란 물건을 싸서 보관하는 행위인데 지기 또한 그러한 인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Park et al., 2006). 포장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기구조 디자인은 상품이 판매되고 소비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생활에 직결되어 있으므로 표면 디자인에 앞서 포장의 구조적인 속성을 해결해야 하며 그 표현 양식은 구조로부터 자연스럽게 생겨나야 한다(Bevlin, 1963/1986).

포장의 형태는 제품 보호라는 1차적 기능을 수

행하고 제품의 분류와 취급 방식 등의 외적 정보를 제공하기에 2차적으로는 제품의 성격을 드러낸다. 디자인의 차별화 방법으로서 형태는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 표현되므로, 3차적으로 형태의 독자성은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 형성을 위해 중요하다(Moon, 2015). 여기서 형태는 지기구조의 종류를 뜻하며 한 장의 종이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포장하는 제작법을 의미한다. 지기구조는 접는 방법, 여닫는 형태, 접착의 유무에 따라 다양한 종류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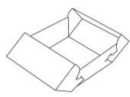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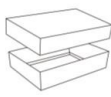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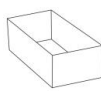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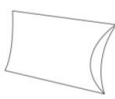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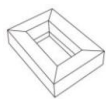







Choi(1999)와 Lee(2017)는 지기의 형태를 스트레이트 스타일(straight style)과 트레이 스타일(tray style)로 나눈다. 스트레이트 스타일은 가장 기본이 되는 스타일로 한 장의 종이에 한쪽을 붙여 고정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트레이 스타일은 스트레이트 스타일 외의 지구를 말하며 바닥 면이 평평한 형태들이 주로 이에 속한다.

Lee(2017)는 스트레이트 스타일과 트레이 스타일로 지구를 나누지만, 지구는 다양화된 제품에 따라 형태를 구체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13가지의 형태로 세분화하였다. <Table 1>은 13가지 지구의 이름과 특징, 기본 형태를 보여준다(Figure 2, Figure 3, Figure 4, Figure 5, Figure 6, Figure 7, Figure 8, Figure 9, Figure 10, Figure 11, Figure 12, Figure 13, Figure 14, Figure 15, Figure 16). 이 구조들은 기본 형태를 바탕으로 제품의 외형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응용 형태를 가지며 이는 본 연구의 디자인 소스로 활용할 계획이다.

3. 패션디자인과 지기구조

본 연구는 헤테로토피아 기반의 발상법을 보여주기 위한 공간으로 지구를 차용하였다. 패션과 지구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헤테로토피아 공간관을 가져왔으며 그 바탕에는 두 분야의 조형 공간적 유사점이 있기 때문이다. 패션디자인과 지

Table 1. 지기구조 형태의 세분화.

구분	튜브형	오픈형		상하짝형	트레이형
		조개오픈카턴	대문오픈카턴		
특징	한 장의 종이에서 한 곳을 붙여 입체를 형성함. 가장 기본적인 지기구조 스타일.	트레이 스타일에 속하며, 조개 모양과 같이 뚜껑이 있어 상하로 열리는 형태.	트레이 스타일에 속하며, 대문처럼 좌우로 열리는 형태.	트레이 스타일로 볼 수 있으며, 상쪽과 하쪽으로 구성된 형태.	쟁반 모양과 같이 평평한 바닥이 있고 외각으로 면이 있는 형태.
기본 형태	 Figure 2. 튜브형. From Lee. (2017). p. 33.	 Figure 3. 조개오픈카턴. From Lee. (2017). p. 33.	 Figure 4. 대문오픈카턴. From Lee. (2017). p. 33.	 Figure 5. 상하짝형. From Lee. (2017). p. 33.	 Figure 6. 트레이형. From Lee. (2017). p. 33.
구분	라운드형		프레임형	사다리형	마름모꼴형
	필로우카턴	라운드카턴			
특징	곡선이 포함된 구조 중 베게 모양의 형태.	필로우 카턴을 제외한 곡선의 구조가 적용된 모든 형태.	트레이 스타일에 속하며, 더블월(double wall)이라 분류하고 벽면이 두꺼워 액자 같은 형태.	테이퍼드 스타일(tapered style)로 불리며, 벽면의 모양이 사다리꼴 형태.	다이아몬드 웨이프 스타일(diamond shape style)로 불리며, 벽면의 모양이 사다리꼴인 형태.
기본 형태	 Figure 7. 필로우카턴. From Lee. (2017). p. 33.	 Figure 8. 라운드 카턴. From Lee. (2017). p. 33.	 Figure 9. 프레임형. From Lee. (2017). p. 35.	 Figure 10. 사다리꼴형. From Lee. (2017). p. 35.	 Figure 11. 마름모꼴형. From Lee. (2017). p. 35.
구분	컷팅형	멀티형	피오피형	손잡이형	행거형
특징	패시티드 스타일(faceted style)로도 불리며, 기본 상자에 면을 컷팅하여 생긴 형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스타일(side by side style)로 두 개 이상의 구조가 모인 형태.	뚜껑이 광고판 역할을 하는 형태.	캐리어 스타일(carrier style)로도 불리며, 상자에 손잡이 기능이 있는 형태.	p.o.p형의 대표적인 스타일로 불리며, 걸 수 있는 형태.
기본 형태	 Figure 12. 컷팅형. From Lee. (2017). p. 35.	 Figure 13. 멀티형. From Lee. (2017). p. 37.	 Figure 14. 피오피형. From Lee. (2017). p. 37.	 Figure 15. 손잡이형. From Lee. (2017). p. 37.	 Figure 16. 행거형. From Lee. (2017). p. 37.

지구조 디자인은 각각 인체와 제품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각적 창조물을 만드는 실용 조형이다. 두 분야 모두 특정한 공간에 대상물을 담으며 시각적 요소에 의해 그 형태가 결정되는 특정 구조를 갖는다. 이에 따라 인체와 제품이라는 내부의 내용물과 외부의 형태로 새로운 공간을 구성하는 조형 방법의 유사점이 있다. 이를 ‘구조의 유기적 전환

성’, ‘내부 공간의 필연성’, ‘재료에 따른 가변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헤데로토피아에 의한 패션 디자인의 디자인 소스로 지구조를 활용하고자 하는 타당성을 밝히고자 한다.

1) 구조의 유기적 전환성

미술은 공간성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공간 창조적 미술, 공간에 놓이는 공간 존재적 미술, 공간을 나타내는 공간 표현적 미술이 그것이다(Min, 1995). 의상과 패키지는 인체와 제품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창조적 미술로 분류할 수 있다. 의상과 패키지는 인체와 제품으로 내부 영역이 구성되어 피부와 그에 따른 특정 스케일과 형태를 형성한다. 패션과 지기구조의 공간을 만든다는 조형적 연관성은 구성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의상 제작 과정은 디자인, 패턴과 재단 그리고 봉제로 이루어진다. 지기구조의 제작 과정은 디자인, 평면도 제작과 샘플 제작 그리고 입체화이다. 두 분야 모두 디자인 실행 과정에서 평면의 설계 과정이 필요하며 정확한 치수와 계산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유사점이다. 패션디자인의 평면 패턴은 인체의 치수에 따른 설계에 맞춰 의복의 원형을 만드는 것이다. 지기구조 역시 패키지를 위한 내용물의 크기와 규격을 확인하고 평면도를 제작한다. 지기구조 설계 시 치수 측정이 가장 중요하며 이에 따른 내용물의 중량, 종이의 두께와 재질, 하면부의 형식을 검토해야 한다(Choi, 1999). 두 분야는 평면 전개도의 입체화를 거쳐 특정 형태로 완성되며 내용물과의 관계로 형태가 결정되는 점이 유사하다.

2) 내부 공간의 필연성

공간은 형태를 만들기 위해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 주요 요소이다. 디자인의 한 요소로서 공간을 다룰 때 조형물의 주위와 내부에 있는 입체적인 실제 공간에 의해 디자인이 좌우된다(Bevlin, 1963/1986). 외형에 의해 형성된 내부 공간은 내용물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패션과 지기구조는 2차원의 평면을 3차원 형태로 만들며 이렇게 만들어진 외부 공간에는 인체와 제품이라는 내부 공간이 필수적이다. McLuhan(1964/2002)은 인체와 피부의 확장 개념으로 의복을 정의하였다. 이처럼 의상은 인체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태가 만들어진

다. 의상은 실루엣과 디테일 등에 의해 형태를 만들며 인체 공간과 필연적 관계로 형태적 조형미를 보여준다. 지기구조 역시 내용물과의 상호관계에 의해 내부 공간이 형성된다. 패키지는 제품의 형태를 반영하며 상품을 담은 입체적 형태는 제품으로 형성된 내부 공간이 있기에 만들어질 수 있다. 이처럼 패션디자인과 지기구조 디자인은 조형적 외형을 형성하기 위한 내용물이 있어야 하며 그 형태와 요소에 따른 내부 공간은 필수적이다.

3) 재료에 따른 가변성

패션디자인과 지기구조 디자인은 재료의 특성에 따라 제작 조건과 완성된 형태의 차이를 보인다는 유사점이 있다. 재료는 창조적인 표현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며 특히 소재가 갖는 고유한 특징은 원하는 형태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요소이다. 복식의 소재는 직물을 비롯하여 편직, 부직포, 피혁, 비닐, 메탈 등 종류가 다양하다(Kong, 2003). 지기구조의 재료는 주로 종이지만 플라스틱, 금속, 유리, 섬유, 목재 등 다양한 종류로 확대되었다. 의도한 의상의 형태를 만들기 위한 소재의 선택은 중요하며 소재가 갖는 물성에 따라 형태의 차이를 보인다. 식서와 바이어스 방향에 따른 재단 방법이 필요하며 신축성의 유무에 따라 시접 및 봉제법의 차이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원단의 두께에 따른 패턴과 봉제법을 고려하여 제작해야 한다. 지기구조 역시 포장할 내용물의 사이즈와 중량에 따라 종이의 크기와 두께를 정해야 하고, 종이의 두께에 따라 각 변의 길이가 다르게 계산되어야 한다(Lee, 2017). 이를 위해 종이의 규정된 치수를 이해하고, 패키징할 내용물의 무게와 크기를 고려하여 지기용 종이를 선택하고 재질이나 그 두께에 따라 평면도의 수치가 달라진다(Park et al., 2006). 이처럼 인체와 제품의 형태는 재료와의 관계에 따라 다른 제작 방법이 필요하고 이는 외부 형태가 구성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III. 헤테로토피아 공간 분석에 따른 패션디자인 개념의 틀

앞서 언급한 헤테로토피아의 6가지 기본 원리는 현실 공간을 이질적으로 바라보면서 동시에 각각의 공간에 대해 독특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과 사용자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인체와 의상의 관계로 확장해 볼 수 있다. 즉, 공간의 개념을 인체의 공간으로 대체하고 이를 다중적 시각으로 재배치하여 형태를 만듦으로써 새로운 디자인의 틀을 형성할 수 있다. 이에 헤테로토피아의 6가지 원리를 디자인 틀로서 개념화하였고, 2010년 이후 런던, 뉴욕, 밀라노, 파리 컬렉션을 분석하여 기존의 의상 형태와 의미를 파괴하고 재해석한 디자인 작품을 선정하였다. 이 사례들은 디자이너에 의해 헤테로토피아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컬렉션 해석에 있어 6가지의 헤테로토피아 원리와의 연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분석은 헤테로토피아의 원리가 디자인으로 자유로이 확장될 가능성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1. 기존 틀의 소멸

첫 번째 원리인 위기와 일탈의 헤테로토피아는 삶의 특정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무질서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다. 기존의 익숙한 상황에서 벗어나 일시적이고 규범에서 벗어난 헤테로토피아 공간은 하나의 정형화된 형식을 파괴한다. 상황에 따라 기존의 익숙한 개념이 바뀌며 개념이 변함에 따라 익숙한 형태는 무의미하고 불변의 형태는 파괴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에서 ‘기존 틀의 소멸’의 디자인 틀을 가져온다(Table 2). 의상의 일부분을 잘라 제거하면 기존의 형태는 사라진다. 따라서 본연의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Figure 17, Figure 18, Figure 19).


2. 의미의 전환

두 번째 원리는 시간의 흐름과 시대에 따라 대상의 의미와 역할이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소의 성격은 변하지만, 시각적으로는 같은 모습을 보이는 장소이다. 항상 존재

Table 2. 기존 틀의 소멸 패션 사례.

구분	기존 틀의 소멸		
디자이너	자크뫼스(Jacquemus)	메종 마르지엘라(Maison Margiela)	MM6
시즌	2016 F/W	2018 S/S	2021 S/S
특징	의상의 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조각으로 기존의 형태를 유추할 수 있고 또한, 그 자체는 새로운 재현의 의미를 담는다.	공간과 시간을 넘나드는 공항의 상황을 재해석하였다. 어깨를 제거한 트렌치코트의 변형, 봉제선과 여밈만 두고 오려낸 맥 코트 등 기존 형태를 제거하여 새로운 의미를 담는다.	영상을 통해 트랜치코트가 재킷과 스커트로 분리되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의 형태에서 벗어나 본연의 모습은 상실하지만 새로운 아이টে็ม으로 재탄생하였다.
디자인	 <p>Figure 17. Jacquemus. From Mower. (2016). https://www.vogue.com</p>	 <p>Figure 18. Maison Margiela. From Yotka. (2017). https://www.vogue.com</p>	 <p>Figure 19. MM6. From Yotka. (2020). https://www.vogue.com</p>

Table 3. 의미의 전환 패션 사례.

구분	의미의 전환
디자이너	콤테가르송(Comme des Garçons)
시즌	2019 S/S
특징	탄생과 창조를 주제로 여성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컬렉션으로 레이 가와쿠보의 고전 작업을 재해석하여 외형은 같지만, 그 의미는 여성에 대한 출산, 탄생, 나이 들어감 등을 통한 해석으로 변화하였다.
디자인	 <p>Figure 20. Comme des Garçon. From Mower, (2018). https://www.vogue.com</p>

하지만, 그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장소의 정체성은 가변적이다. 이 원리에서 접근한 개념의 틀은 ‘의미의 전환’이다(Table 3).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식의 변화로 같은 형태라도 다르게 받아들인다. 같은 스타일이라도 시대에 따른 해석의 차이를 보인다(Figure 20). 이는 정체성의 변화에 따른 시각적 형태의 변형으로 디자인의 새로운 접근법을 가져온다.

3. 양가적 시각의 병치

헤테로토피아는 이질성을 인정하며 불연속적인 개념을 한 공간에 사유할 수 있다. 푸코는 거울을 빗대어 이러한 원리를 설명하였고 거울 공간은 실체와 그를 반영한 허구의 사이 공간이다. 즉, 한 공간에 나란히 놓일 수 없는 현실과 비현실의 양가적 관계 맺음의 공간이며 그 공간의 경계는 모호하다. 이러한 이질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공간이 공존하는 헤테로토피아 원리로부터 접근한 개념의 틀은 ‘양가적 시간의 병치’이다(Table 4). 상반되는 요소들이 양립하거나 같아 보이지만 반대되는 이질적인 요소들이 조합하여 새로운 구성을 보인다

(Figure 21, Figure 22).

4. 다층적 배치

무한히 축적되는 시간과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시간의 헤테로토피아는 시간의 연속된 형태에 의해 다층적 공간을 만든다. 이러한 원리로부터 도출한 디자인 개념의 틀은 ‘다층적 배치’이다(Table 5). 같은 공간 속 시간을 초월한 중첩은 입체적 공간을 형성한다. 다시 말해 영역의 경계 없이 평면의 형태들이 겹쳐 입체 형태로 연결된다. 이러한 공간의 시각적 확장은 공간이 갖는 특성을 간직하며 새로운 형태로 이어진다(Figure 23, Figure 24).



5. 소통의 차단

헤테로토피아는 닫힘과 열림의 구조를 가지며 개방적이면서도 차단된 구조를 갖는 공간이다. 자유롭게 열려있지만 고립된 형태의 공간과 부자연스러운 체계의 닫힌 공간의 원리로부터 나온 개념의 틀은 ‘소통의 차단’이다(Table 6). 공간과 이용자의 관계가 어긋나 기존 공간의 의미는 사라지고

Table 4. 양가적 시각의 병치 패션 사례.

구분	양가적 시각의 병치	
디자이너	메리 카트란주(Mary Katrantzou)	톰 브라운(Thom Browne)
시즌	2018 F/W	2019 F/W 남성복
특징	미술공예운동(Arts and Crafts Movement)과 바우하우스(Bauhaus)의 수공예적 장식과 모더니즘적 그래픽을 대조적으로 보여준 컬렉션이다. 상반된 이상을 가진 직전, 후 시대의 두 사조가 시각적으로 양면적 관계를 보이며 한 공간에 병치되었다.	여러 종류의 의상이 섞인 탈구축적 남성 수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남성복 아이템들을 여성복의 실루엣으로 조합하여 전형적인 남성복의 개념을 탈피하였다. 여성과 남성의 인체가 한 공간에 놓이며 상반되는 요소의 신선한 조합을 제공한다.
디자인	 <p>Figure 21. Mary Katrantzou. From Mower, (2018). https://www.vogue.com</p>	 <p>Figure 22. Thom Browne. From Leitch, (2019). https://www.vogue.com</p>

Table 5. 다층적 배치 패션 사례.

구분	다층적 배치	
디자이너	톰 브라운	메종 마르지엘라
시즌	2017 S/S 남성복	2020 F/W
특징	클래식 수트의 평면패턴 조각들을 왜곡된 크기로 잘라 겹쳐 표현한다. 겹친 형태는 평면이지만 평면의 사이 공간의 연속 배치로 수트는 입체의 형태를 띤다.	레시클라(Recicla)라인으로 폐기된 원단을 활용한 해체와 업사이클링의 컬렉션이다. 각 원단으로 다른 디테일을 만들어 시간의 역사가 축적된 의상을 완성한다. 또한, 미완성된 의상은 시간의 연속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디자인	 <p>Figure 23. Thom Browne. From Leitch, (2017). https://www.vogue.com</p>	 <p>Figure 24. Maison Margiela. From Mower, (2020). https://www.vogue.com</p>

새롭게 해석된다. 의상의 필수적인 기능이 무너지고 인체와 의상 간의 경계가 사라져 양의적 공간을 만든다. 인체의 일부분을 일정 공간에 가두어 그 기능을 인위적으로 억제하여 새로운 형태를 만든다(Figure 25, Figure 26, Figure 27).



6. 독립된 주체의 의미화

공간 자체에 의미가 있는 환상의 공간과 보상의 공간이라는 원리로부터 발전한 디자인 개념의 틀은 ‘독립된 주체의 의미화’이다(Table 7). 공간의 개념이 확장되고 경계가 사라지며 의상의 일반적

Table 6. 소통의 차단 패션 사례.

구분	소통의 차단		
디자이너	JW 앤더슨(JW Anderson)	자크뫼스	김해김(KimheKim)
시즌	2014 리조트	2016 S/S	2020 S/S
특징	의상을 통해 외부로부터 인체를 차단한다. 장식적인 의상의 부분이 사라지고 인체 일부를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그 기능을 제거하여 낮은 시각으로 디자인을 제공한다.		
디자인	 <p>Figure 25. JW Anderson. From Singer, (2013). https://www.vogue.com</p>	 <p>Figure 26. Jacquemus. From Mower, (2016). https://www.vogue.com</p>	 <p>Figure 27. KimheKim. From Burlet, (2019). https://wwd.com</p>

Table 7. 독립된 주체의 의미화 패션 사례.

구분	독립된 주체의 의미화	
디자이너	폼테가르송	릭 오웬스(Rick Owens)
시즌	2017 F/W	2018 S/S
특징	인체 중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과감하게 팽창된 형태로 변형하여 전형적인 여성 실루엣의 정의를 해체하였다. 왜곡된 인체의 재현으로 표준화된 의상의 기능과 인체 이미지를 무시하고 새로운 공간을 창조한다.	
디자인	 <p>Figure 28. Comme des Garçons. From Mower, (2017). https://www.vogue.com</p>	 <p>Figure 29. Rick Owens. From Phelps, (2017). https://www.vogue.com</p>

인 형태에서 벗어나 독립된 조형 공간으로 변모한다. 인체의 형태에 따른 패션디자인은 사라지고 영역이 확장되어 전혀 새로운 공간의 형태로 의상을 창조한다. 전통적인 의상은 과감한 형태로 전환되어 고정화된 공간에서 벗어나게 된다(Figure 28, Figure 29).

IV. 디자인 개발

1. 헤테로토피아 실천으로서 지기구조적 디자인 방법

Diefenbacher(2021)는 패션디자인에 있어 디자인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인식 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 상상하며, 맥락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라 최종적으로 의상으로 표현된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헤테로토피아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발상법을 구축하여 철학적 개념이 시각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헤테로토피아의 6가지 원리로부터 디자인 개념의 틀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디자인 개념의 틀은 실질적인 디자인 작품으로 실현될 수 있는 6가지 디자인 방법으로 확장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간’이라는 개념은 의상이 구성될 때 인체와의 관계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6가지 디자인 방법을 ‘공간’의 개념에서 각각 정의하였다. 또한, 디자인 방법을 시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연구자에 의해 만들어진 도식으로 구체화한다. 실질적 디자인 개발을 위해 패션과의 조형적 유사성을 갖는 지기구조를 디자인 소스로 활용하고자 한다. 디자인 소스로 사용할 지기구조는 기본형에서 파생된 응용 형태이다. 선택한 6가지의 지기구조는 Lee(2017, 2018, 2021)의 「Package Structure」 시리즈와 Choi(1999)의 「Package Paper Structure Design」의 다양한 예시 중 모두 다른 형태를 취하며 지기구조의 조형적 특징이 잘 보이고 각각의 지기구조적 디자인 방법에 독창적 아이디어로 연결될 수 있을 구조를 다양한 스케치와 샘플 작업을 통해 선별하였다. 지기구조가 가지고 있는 조형적 특징은 도출한 패션디자인 방법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헤테로토피아 공간관을 반영한 지기구조적 패션디자인 여섯 착장을 전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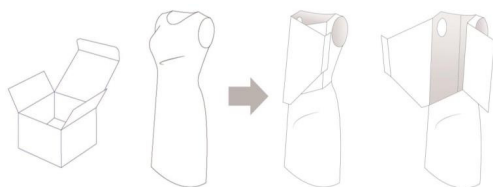


Figure 30. 기능의 선화를 통한 가동적 공간의 도식.

1) 기능의 선화를 통한 가동적 공간

디자인 개념의 틀 ‘기존 틀의 소멸’로부터 발전시킨 디자인 방법은 ‘기능의 선화를 통한 가동적 공간’이다. 이 방법은 지기구조의 특징적인 형태와 디테일을 의상과 결합하여 새로운 의상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Figure 30). 도식에서처럼 지기구조의 뚜껑 형태가 드레스의 여밈 디테일로 활용되어 형태를 반영함은 물론이고 그 기능의 일부를 수행한다. 지기구조의 형태와 기능이 일부 반영되어 지기구조임을 연상할 수 있지만 지기구조의 절대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의상 역시 디테일이 지기구조에서 차용되어 의상이 갖는 구조적, 기능적 고정관념을 탈피할 수 있다.

2) 이동하는 공간

디자인 개념의 틀 ‘의미의 전환’으로부터 전개한 디자인 방법은 ‘이동하는 공간’이다. 의상의 공간이 지기구조의 공간으로 변해가는 추상적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두 공간을 구성하는 선의 요소를 활용한다(Figure 31). 도식에서처럼 드레스에 지기구조의 일부분이 합쳐지는 데 있어 의상의 구성선과 절개선이 지기구조의 접합선과 의도적으로 연결되며 독특한 형태를 구성한다. 의상과 지기구조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절개선과 장식선들이 형성되고 비대칭적, 비정형적 형태를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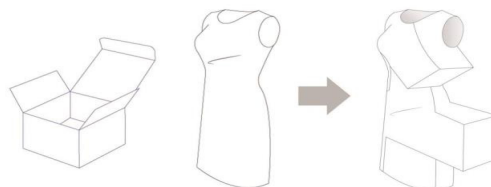


Figure 31. 이동하는 공간의 도식.

3) 양면적 존재의 관계 맺음 공간

디자인 개념의 틀 ‘양가적 시각의 병치’로부터

전개한 디자인 방법은 ‘양면적 존재의 관계 맺음 공간’이다. 실제 공간과 거울 속 공간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평면의 지기구조 도면과 조립된 입체의 지기구조는 공존할 수 없다(Figure 32). 도식에서처럼 공존할 수 없는 두 구조의 의도적 조합은 새로운 디자인 형태를 표현할 수 있다. 전개도는 그대로 의상의 평면 패턴으로 사용되고 입체로 완성된 박스는 의상의 일부 디테일로 결합하여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 없는 2차원과 3차원의 요소가 결합하여 양립 불가능한 관계를 디자인 방법으로 보여준다.

4) 시간의 흐름을 축적하는 공간

디자인 개념의 틀 중 ‘다층적 배치’로부터 발전한 디자인 방법은 ‘시간의 흐름을 축적하는 공간’이다. 이는 지기구조의 평면 전개도가 입체의 형태로 변해가는 시간의 과정을 중첩된 공간으로 보여주는 디자인 방법이다(Figure 33). 도식에서처럼 지기구조의 전개도가 박스로 변하는 과정을 시간 단위로 나타낸다. 중첩된 형태들은 조금씩 변해가고 축적해 생긴 사이의 공간들은 입체감을 만들어 전체 실루엣의 부피감과 리듬감을 가져온다. 즉, 시간의 연속성은 공간의 연속성으로 이어져 연속

면의 입체 형태가 완성된다.

5) 외부의 모호한 차단을 통한 또 하나의 공간

디자인 개념의 틀 ‘소통의 차단’으로부터 전개한 디자인 방법은 ‘외부의 모호한 차단을 통한 또 하나의 공간’이다. 인체와 의상의 이분법적 관계를 탈피하고자 지기구조로 인체 일부를 격리하는 방법이다(Figure 34). 도식에서처럼 지기구조의 공간에 인체를 담아 의상의 특정 부분을 차단하여 의상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인체의 움직임에 제한한다. 인체의 어떤 부분인지 위치를 예측할 수 있지만, 기능을 차단하고 동작을 제한하여 전통적인 의상의 개념을 해체해 새로운 인체 공간을 디자인할 수 있다.

6) 재정의된 공간

디자인 개념의 틀 ‘독립된 주체의 의미화’로부터 발전한 디자인 방법은 ‘재정의된 공간’이다. 이 방법은 연관성 없는 전혀 다른 형태의 대상과 결합하여 전형적인 의상 형태에서 벗어나 이질적인 형태로 새로움을 전하는 것이다(Figure 35). 도식에서처럼 인체의 라인을 무시하고 기하학적인 지기구조 자체가 의상으로 전환되어 비정상적인 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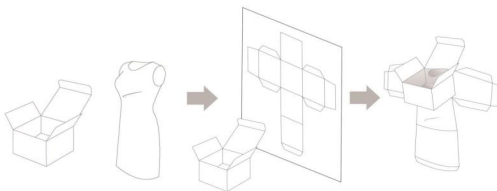


Figure 32. 양면적 존재의 관계 맺음 공간의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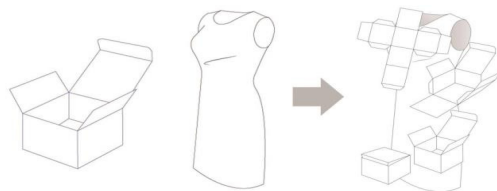


Figure 33. 시간의 흐름을 축적하는 공간의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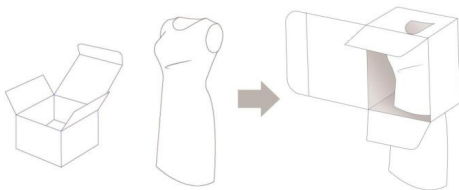


Figure 34. 외부의 모호한 차단을 통한 또 하나의 공간의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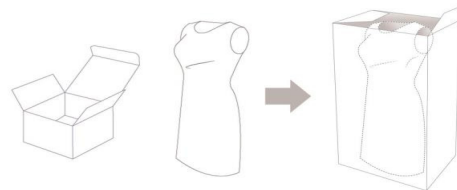


Figure 35. 재정의된 공간 디자인 방법의 도식.

공간의 이미지를 만든다. 인체의 실루엣을 따르지 않고 지기구조만의 형태로 이루어진 독립된 조형 공간으로 과장되고 구조적인 실루엣을 창조할 수 있다.

2. 작품 및 해설

디자인 실행을 위한 발상 개념으로부터 도출한 지기구조적 디자인 방법은 기능의 선회를 통한 가동적 공간, 이동하는 공간, 양면적 존재의 관계 맺음 공간, 시간의 흐름을 축적하는 공간, 외부의 모호한 차단을 통한 또 하나의 공간, 재정의된 공간이다. 헤테로토피아의 6가지 원리에 따른 6가지 개념의 틀을 도출하고, 개념의 틀마다 각각 다른 디자인 방법을 도출하였다. 헤테로토피아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공간을 낫설게 한다는 공통분모 아래 각각 다른 특징을 보이는 원리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6개의 작품은 디자인 전개 방법이 다르고 그에 따른 결과물도 또한 다른 외형적 특징을 보인다.

1) 작품 1

작품 1(Table 8)은 기능의 선회를 통한 가동적 공간의 방법으로 지기구조의 일부 형태와 결합하여 독특한 의상 공간을 형성하고 지기구조의 기능이 의상에서 제 역할을 수행한다. 디자인 소스로 응용한 지기구조는 소용돌이 형태가 맞물리는 여민 형태의 사다리꼴형 지기구조이다(Figure 36). 지기구조 전개도의 일부분이 의상의 패턴과 결합하여 새로운 구조의 재킷 형태를 만들며 오버사이즈의 박스 실루엣과 직사각형의 평면적 형태의 소매는 패키지의 앞면과 옆면의 형태를 연상시킨다(Figure 37). 뚜껑의 소용돌이 여민 구조가 디자인에 응용되어 새로운 재킷 형태와 디테일을 보여준다. 재킷의 여민 디테일로 지기구조의 여민 구조를 활용하여 기능적으로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공통점이 디자인의 특징적 부분으로 나타난다(Figure 38). 뒷몸판 역시 지기구조의 바닥 구조를 가져와 박스를 그대로 연상할 수 있는 디자인을 보여준다(Figure 39).

Table 8. 작품 1.

디자인 개념의 틀	기존 틀의 소멸	디자인 소스	 <p>Figure 36. 사다리꼴 응용형. From Lee. (2018). pp. 186-187.</p>
지기구조적 패션디자인 방법	기능의 선회를 통한 가동적 공간 - 지기구조의 일부가 의상의 디테일로 해석됨		
작품 1 / 작품 1의 디테일	 <p>Figure 37. 작품1의 전면.</p>	 <p>Figure 38. 작품1의 전면 디테일.</p>	 <p>Figure 39. 작품1의 후면 디테일.</p>

2) 작품 2

작품 2(Table 9)는 이동하는 공간의 디자인 방법으로 전개한 작품으로 의상의 공간이 지기구조의 공간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옷의 구성선이 지기구조의 형태를 만들기 위한 접힘선으로 변해가는 영역의 경계가 모호한 형태를 보여준다. 디자인 소스로 응용한 지기구조는 오픈형의 삼각형, 사다리꼴, 오각형, 마름모 도형이 조합된 지기구조이다(Figure 40). 선에 의해 이동하는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고 접힘선이 복잡한 지기구조로 선택하였다. 복잡한 도형의 접힘선들은 드레스의 절개선으로 연결되어 복잡한 구조의 형태로 몸을 감싸 공간의 이동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Figure 41, Figure 42). 드레스의 실루엣이 잘 드러나는 뒷모반의 의상 공간에서 구조적인 앞모반의 지기구조 공간으로 이동하는 비정형, 비대칭적 디자인 형태를 보여준다(Figure 43).

3) 작품 3

작품 3(Table 10)은 양면적 존재의 관계 맺음 공

간의 방법으로 전개한 작품으로 푸코의 거울 공간처럼 한 곳에 놓일 수 없는 지기구조의 전개도와 완성된 패키지가 함께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디자인 소스로 응용한 지기구조는 컷팅형으로 거울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전개도와 입체 형태를 함께 사용하였다(Figure 44). 특히 전개도의 형태가 의상의 평면 패턴과 유사한 지기구조를 선택하였다. 비례는 유지하되 신체 사이즈에 맞게 확대하고 조정한 지기구조는 그대로 앞, 뒤 모반의 패턴이 되어 평면성이 강조된 드레스가 되었다(Figure 45, Figure 46). 지기구조의 입체 형태는 옷의 외부 공간, 즉 양립 불가능함을 강조하기 위한 공간으로 어깨 위에 네크라인 장식으로 배치하여 공존할 수 없는 관계의 공존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Figure 47).

4) 작품 4

작품 4(Table 11)는 시간의 흐름을 축적하는 공간의 방법으로 전개한 작품으로 지기구조의 전개도가 입체 형태로 변해가는 과정을 중첩의 형태로

Table 9. 작품 2.

디자인 개념의 틀	의미의 전환	디자인 소스	 <p>Figure 40. 조개오픈카턴 응용형. From Lee. (2018). pp. 202-203.</p>
지기구조적 패션디자인 방법	이동하는 공간 - 의상의 공간이 지기구조의 공간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집중함		
작품 2 / 작품 2의 디테일	 <p>Figure 41. 작품2의 전면.</p>  <p>Figure 42. 작품2의 전면 디테일.</p>  <p>Figure 43. 작품2의 후면 디테일.</p>		

Table 10. 작품 3.

디자인 개념의 틀	양가적 시각의 병치	디자인 소스	 <p>Figure 44. 컷팅 응용형. From Lee. (2021). pp. 100-101.</p>
지기구조적 패션디자인 방법	양면적 존재의 관계 맺음 공간 - 같은 시,공간에 존재하기 어려운 지기구조의 도면과 입체를 함께 보여줌		
작품 3 / 작품 3의 디테일	 <p>Figure 45. 작품3의 전면.</p>		
	 <p>Figure 46. 작품3의 후면.</p>		
	 <p>Figure 47. 작품3의 전면 디테일.</p>		

Table 11. 작품 4.

디자인 개념의 틀	다층적 배치	디자인 소스	
지기구조적 패션디자인 방법	시간의 흐름을 추적하는 공간 - 지기구조의 도면이 입체화되는 과정을 보여줌		
작품 4 / 작품 4의 디테일			
			
			

Figure 48. 컷팅 응용형.
From Lee. (2018). pp. 194-195.

Figure 49. 작품4의 전면.

Figure 50. 작품4의 전면 디테일.

Figure 51. 작품4의 측면.

표현한다. 디자인 소스로 응용한 지기구조는 컷팅 형으로 조립 과정이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 접힘선이 많지 않고 각 면의 크기가 큰 지기구조를 선택

하였다(Figure 48). 지기구조의 전개도가 접힘선을 따라 조립되는 과정을 8단계로 나눠 점진적으로 형태의 변화를 보여주었다(Figure 49). 첫 단계의 지기

Table 12. 작품 5.

디자인 개념의 틀	소통의 차단	디자인 소스	
지기구조적 패션디자인 방법	외부의 모호한 차단을 통한 또 하나의 공간 - 지기구조 속에 의상을 격리하여 의상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함		
작품 5 / 작품 5의 디테일	  		
	<p>Figure 53. 작품5의 측면.</p> <p>Figure 54. 작품5의 전면 디테일.</p> <p>Figure 55. 작품5의 측면 디테일.</p>		

구조는 수직 구도를 이루며 점점 사선의 구도를 보여준다(Figure 50). 마지막 단계의 완성된 입체 형태는 소매가 된다(Figure 51). 모든 단계는 기울어 포개져 연속면의 효과를 느낄 수 있고 부피감과 리듬감을 통한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5) 작품 5

작품 5(Table 12)는 외부의 모호한 차단을 통한 또 하나의 공간의 방법으로 전개한 작품으로 지기구조를 이용하여 인체를 의도적으로 격리하여 인체 공간이 갖는 기존의 개념을 파괴한다. 디자인 소스로서의 지기구조는 마름모꼴형으로 내부와 외부 상자로 이루어져 있다. 상의와 하의를 디자인하기 위해 인체를 담을 수 있는 상하좌 형태의 지기구조를 선택하였다(Figure 52). 블라우스와 스커트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기구조에 가두어 고립된 공간을 만든다(Figure 53). 블라우스의 경우 돌출된 박스 형태로 왼쪽 소매를 제외하고 모든 부분을 격리하고 있다. 박스 안쪽에 존재하는 오른쪽 소

매는 앞쪽으로만 움직임이 가능하다(Figure 54). 스커트의 경우 골반부터 햄 라인까지 전면을 박스 공간에 감추어 전통적인 의상의 형태를 해체하였다(Figure 55). 지기구조로 인해 의상의 실용적 기능과 그 형태가 완전히 사라지고 조형성만 존재하는 디자인을 보여준다.

6) 작품 6

작품 6(Table 13)은 재정의된 공간의 방법으로 전개한 작품으로 지기구조 형태 자체가 의상이 되어 독립된 조형 공간을 만든다. 디자인 소스로 응용한 지기구조는 튜브형으로 4면이 뒤틀려 옆면이 사선으로 내려오는 형태이다. 지기구조가 갖는 기하학적 조형미와 형태감을 의상의 실루엣으로 응용하기 효과적인 형태를 선택하였다(Figure 56). 인체를 지기구조 안의 내용물로 간주하여 인체를 감싸 보호하는 형태로 독특한 의상의 구조를 만든다(Figure 57, Figure 58). 각 옆면에 타원형의 구멍을 내어 드레스와 연결하여 의상으로서의 안정적 구

Table 13. 작품 6.

디자인 개념의 틀	독립된 주체의 의미화	디자인 소스	
지기구조적 패션디자인 방법	재정의된 공간 - 입체의 지기구조가 의상의 전체 실루엣이 됨		
작품 6 / 작품 6의 디테일			
	Figure 57. 작품6의 측면.	Figure 58. 작품6의 전면 디테일.	Figure 59. 작품6의 측면 디테일.

조를 완성하였다(Figure 59). 입체의 지기구조 자체가 의상으로 탈바꿈하며 지기구조의 역할이 전복되어 시각적 새로움을 전달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새로운 패션디자인 발상의 방법론을 위해 다른 영역과의 교류의 필요성에 착안하여, 철학의 개념을 디자인에 적용하는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공간을 낮설게 보는 헤테로토피아에 기반한 디자인 개념의 틀로부터 지기구조적 패션디자인 방법을 도출함으로써 패션 공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헤테로토피아 공간관의 실천으로서 지기구조적 패션디자인 방법을 실제 디자인에 적용해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헤테로토피아는 현실 속의 유토피아로 낮선 공간을 의미한다. 일상을 낮설게 접근하고 해석하는 것은

새로운 발상을 위해 중요한 과정이며 헤테로토피아는 새로운 인체 공간을 사고할 수 있게 해주어 패션디자인의 독창적 디자인 발상법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지기구조의 조형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 패션디자인과 지기구조 디자인은 조형적 공간 작업이라는 유사성이 있었다. 외형적 구조를 구성한다는 점, 형태를 구축하는 방식, 기능 등 디자인을 만드는 규칙과 원리적 측면에서 유사하여 지기구조는 헤테로토피아 공간관을 기반으로 한 패션디자인을 보여주기 위한 공간으로 차용하기에 충분하였다. 셋째, 헤테로토피아의 6가지 원리로부터 디자인 개념의 틀을 도출하였고 각 원리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토대로 기존 관념에서 인체 공간을 해방시켜 의상 형태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넷째, 디자인 개념의 틀로부터 전개한 구체적인 6가지 디자인 방법은 기능의 선화를 통한 가동적 공간, 이동하는 공간, 양면적 존재의 관계 맺음 공간, 시간의 흐름을 축적하는 공간, 외부의 모호한 차단을 통한 또 하나의 공간,

재정의된 공간으로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철학적 개념이 디자인 발상의 근간이 되어 지기구조라는 디자인 소스를 만나 인체를 또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인체 공간을 만들어냄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디자인을 전개하기 위해 지기구조를 의상 패턴과 결합하는 방법은 평면 패턴과 확대한 지기구조 도면의 평면적 결합, 의상과 지기구조의 형태적 입체 재단이었다. 지기구조의 형태가 인체와 결합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인체 부분에서 독특한 구조가 구축되어 새로운 조형미를 창출할 수 있었다. 또한, 지기구조가 갖는 각진 구조는 인체의 곡선과 어우러져 인체를 따르는 형태는 물론 인체에서 벗어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철학적 사상을 시각화하여 새로운 디자인 발상법을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실제 디자인에 적용하여 그 실천 가능성을 확인하므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다. 지기구조의 형태와 종류는 제품의 다각화로 계속적인 디자인 개발이 있기에 적용 가능한 지기구조 역시 다양하다. 따라서 제안한 디자인 방법과 다른 지기구조의 결합으로 더욱 확장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후속 연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References

- Ahn, S. J. (2017). *Conversion from utopia to heterotopia in contemporary art: Focused on my work*.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 Bevlin, M. E. (1986). *Design through discovery* (Jung, K. W., Trans.). Seoul: Designhouse.(Original work published 1963)
- Bowles, H. (2017, July 5). Maison Margiela: Fall 2017 couture. *Vogue*. Retrieved February 13, 2021,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7-couture/maison-martin-margiela>
- Burlet F. (2019, September 24). KimheKim Spring 2020, *WWD*. Retrieved February 13, 2021, from <https://wwd.com/?runway-review=kimhekim-rtw-spring-1203309132>
- Choi, C. S. (1999). *패키지 지기구조디자인* [Package paper structure design]. Seoul: Changjisa.
- Chung, S., Yim, E., & Suh, S. (2018). Genderless styles in menswear analyzed through the heterotopia concep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2(4), 626-638. doi:10.5850/JKSCT.2018.42.4.626
- Dieffenbacher, F. (2021). *Fashion thinking: Creative approaches to the design process* (2nd ed.). London and New York: Bloomsbury Visual Arts
- Foucault, M. (2014). *Heterotopia* (Lee, S. G., Trans.). Seoul: Moonji Publishing.(Original work published 1967)
- Foucault, M. (2012). *The order of things* (Lee, K. H., Trans.). Seoul: Minumsa.(Original work published 1966)
- Gros, F., Artieres P., Adomo F., Fimiani M. & Pradeau J. (2006). *Foucault le courage de la verite* (Park, E. Y., Park, G. H., Kim, Y., & Sim, S. G., Trans.). Seoul: Gill.(Original work published 2002)
- Kim, C. (2001). *골판지 지기이야기* [The story of corrugated cardboard]. Seoul: Korea Packaging Industry Research Institute.
- Kim, M. J. (2016). *A study on the fashion design development method by the heterotopia spacial concep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 Kong, M. S. (2003). *A study on the expansion methodology of creative fashion desig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G. S. (2017). *Package Structure 2*. Koyang: Booksam.
- Lee, G. S. (2018). *Package Structure 3*. Koyang: Booksam.
- Lee, G. S. (2021). *Package Structure 5*. Koyang: Booksam.
- Lee, K. S. (2015). *A study on the 1950's British pop art exhib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Michel Foucault's theo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Leitch, L. (2017, January 22). Thom Browne: Fall 2017 menswear. *Vogue*. Retrieved February 13, 2021,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7-menswear/thom-browne>
- Leitch, L. (2019, January 19). Thom Browne: Fall 2019 menswear. *Vogue*. Retrieved February 13, 2021,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9-menswear/thom-browne>
- Mcluhan, M. (2002).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Kim, S. H., Trans.). Seoul: Communication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64)
- Min, K. W. (1995). *디자인의 이해: 인간, 사회, 그리고 자연을 생각하며* [Design, Human, Society & Nature]. Seoul: Mijinsa.
- Moon, S. M. (2015)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패키지디자인* [The Key to Make Everything Look Better, Package Design]. Seoul: Gilbut.
- Mower, S. (2017, March 4). Comme des Garçons: Fall 2017 ready to wear. *Vogue*. Retrieved February 13, 2021,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7-ready-to-wear/comme-des-garcons>

- Mower, S. (2018, September 29). Comme des Garçons: Spring 2019 ready to wear. *Vogue*. Retrieved February 13, 2021,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9-ready-to-wear/comme-des-garcons>
- Mower, S. (2015, September 29). Jacquemus: Spring 2016 ready to wear. *Vogue*. Retrieved February 13, 2021,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jacquemus>
- Mower, S. (2016, March 1). Jacquemus: Fall 2016 ready to wear. *Vogue*. Retrieved February 13, 2021,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6-ready-to-wear/jacquemus>
- Mower, S. (2017, September 27). Maison Margiela: Spring 2018 ready to wear. *Vogue*. Retrieved February 13, 2021,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8-ready-to-wear/maison-martin-margiela>
- Mower, S. (2020, February 26). Maison Margiela: Fall 2020 ready to wear. *Vogue*. Retrieved February 13, 2021,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0-ready-to-wear/maison-martin-margiela>
- Mower, S. (2018, February 18). Mary Katrantzou: Fall 2018 ready to wear. *Vogue*. Retrieved February 13, 2021,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8-ready-to-wear/mary-katrantzou>
- Park, K. W., Choi, D. S., Han, B. J., Kim, J. H., & Ko, B. S. (2006). 패키지디자인! [Package design]. Paju: Ahngraphics.
- Park, K. (2017). *The concept of heterotopia in Michel Foucault: an aesthetic interpretation based on its literary origin. The Korean Journal of Aesthetics*, 83(1), 105-141.
- Phelps, N. (2017, September 28). Rick Owens: Spring 2018 ready to wear. *Vogue*. Retrieved February 13, 2021,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8-ready-to-wear/rick-owens>
- Seo, S.-M. (2011).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fluid form expressed in the modern fashion.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19(4), 805-819. doi:10.29049/rjcc.2011.19.4.805
- Singer, M. (2013, June 10). J.W. Anderson resort 2014. *Vogue*. Retrieved February 13, 2021,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resort-2014/j-w-anderson>
- Yotka, S. (2020, September 28). MM6 Maison Margiela: Spring 2021 ready to wear. *Vogue*. Retrieved February 13, 2021,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21-ready-to-wear/mm6-maison-martin-margiela>

Developing Fashion Design through Packaging Structure

- A Heterotopian Perspective -

Shin, Hea Jeong · Kim Hea Yeon⁺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The University of Suwon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pproach fashion from a new artistic perspective by visualizing the concept of philosophy and developing it into a new fashion design idea. The heterotopia will open up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creative methods of fashion design with a spatial view that blends the existing space with heterogeneous elements and approaches. It is meaningful to present the possibility of creative fashion design expression by specifying the design according to the types of various ideas derived from the heterotopia. The methods of this study are a combination of theoretical research on heterotopia and research on the structure of package design that will be used as a design sourc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books, papers, and Internet sites. Also, case studies and analysis were conduct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ix principles of heterotopia, a new design method is constructed to develop a structured fashion design. Based on the design method from heterotopia, the new way of design is developed and verified. By developing various types of designs in six ways about structured design, 6 types of the package structural fashion design reflecting heterotopia are produced.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heterotopia, which interprets daily life in an unfamiliar way, showed the possibility of deriving an creative idea about a new space in fashion. Second, fashion and structure of a package have a common characteristic of forming an external structure and the design production principles such as construction method and function of forms. Third, the design concept was derived from six principles of heterotopia that liberated a human body from the existing notion and opened up the possibility of diversifying forms of clothing. Forth, the package design was an interesting design source for expressing heterotopia as silhouette and shape of fashion design. It is meaningful and can be distinguished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this study has derived a new design idea by visualizing philosophical thought and realized designs based on this.

Key words : Heterotopia, structure of package design, fashion design idea

